

# ‘여봉훈 결승골’ 광주 FC, 창단 첫 ‘최강’ 전북 잡았다



지난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 FC와 전북 현대와의 KEB하나은행 2017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경기에서 광주 FC 여봉훈이 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은 뒤 관중들을 향해 하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K리그 클래식 8R

2011년 후 4무6패 열세

7경기만에 시즌 2승

프로축구 광주 FC가 안방에서 대어를 낚았다. 여봉훈의 결정적인 한방으로 전북 현대를 6경기 연속 무승 탈출의 제물로 삼았다.

광주 FC가 지난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EB하나은행 2017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여봉훈의 골을 지키며 1-0 승리를 거뒀다.

5승2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의 무패행진을 저지한 광주는 지난 3월4일 대구 FC와의 개막전 이후 7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특히 이번 승리는 광주가 2011년 창단 이후 처음 ‘울스타 군단’ 전북에 거둔 역사적인 첫 승리다. 광주는 앞선 전북과의 만남에서 4무6패에 그쳤다.

전반 11분 최전방에 있던 주현우가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받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로빙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골대를 빗나갔지만 광주는 초반부터 전북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경기를 풀어갔다.

전북은 전반부터 예상치 못한 부상 복병을 만났다. 전반 12분 전북 이용이 광주 이민기와 머리를 부딪치면서 김신욱과 교체됐다.

광주의 수비 집중력이 좋았다. 전반 26분 전북 에두가 정호민과 박동진을 따돌리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달려나온 골키퍼 윤보상에 이어 박동진이 마지막까지 골대를 지키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골대도 광주 편이었다. 전반 35분 에두의 베타같은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전반 43분 광주 남기일 감독이 교체 카드를 일찍 사용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조주영을 대신해 송승민이 그라운드에 올랐다. 송승민의 통산 100번째 출전, 원클럽 100경기가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교체 카드를 쓴 지 3분 만에 광주가 시원한 골을 터트렸다. 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전북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낸 볼을 여봉훈이 잡았다. 여봉훈은 이어 오른발로 견고한 전북의 골대를 뚫으며 그라운드를 울렸다.

후반전은 전력에서 앞선 전북이 주도했다. 실 새 없이 광주 진영을 파고들면서 공세를 펼쳤지만 골대는 열리지 않았다. 후반 18분 정혁의 오른발 프리킥이 다시 한번 골대를 강타하면서 전북이 또 땅을 쳤다. 이어 전북 에델의 터닝슛은 윤보상에 막혔다.

‘진정팀’을 상대한 이승기의 터닝슛도 크로스바에 맞는 등 김보경, 김신욱, 이동국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무서운 기세로 광주를 공략했지만 모두 허탈하게 머리를 감싸야 했다.

후반 45분이 모두 흐른 뒤 무려 6분이라는 추가시간까지 주어졌지만 마지막까지 전북의 발을 묶은 광주는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신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방망이·마운드 기싸움 밀려 ‘천적’ 청산 실패



KIA, NC에 1승2패

반 경기차로 1위 유지

‘호랑이 군단’이 1위는 지켰지만 열세 만회는 실패했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의 시즌 3차전에서 1-12, 대패를 당했다. 전날 12회 연장 승부 끝에 6-8로 졌던 KIA는 시즌 첫 만남에서 1승2패를 기록하며 시즌 두 번째 루징 시리즈를 남겼다. 반 경기차로 지난 14일부터 이어온 1위 독주는 이어가며 ‘4월 1위’ 타이틀을 지켰다.

1위 KIA와 2위 NC의 맞대결로 시선을 끌었던 시리즈였지만 마운드와 한방 싸움에서 밀렸다.

KIA는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나선 지난 28일, NC 신에 장현석이 제구 난조로 1회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9-3 승리

이명기의 중견수 안타 때 김민식이 홈을 밟으면서 1-1이 됐다. 그러나 이게 이날 KIA의 처음이자 마지막 득점이었다.

NC 중견수로 나온 김준완과 우익수 나성범이 빠른 움직임으로 외야를 누비면서 KIA의 공격을 차단했다. 반대로 KIA의 수비는 허점을 보였다. 이날 기록된 실책은 4회 나지완의 실책 하나지만 3루수 이범호의 실책 플레이 등이 나오면서 실점이 쌓였고, ‘셋볼’ 임기영이 6.2이닝 8피안타 1볼넷 3탈삼진 4실점(3자책점)으로 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 뒤 후반에는 파워 싸움에서 졌다. NC 박석민이 멀티 2루타에 이어 연타석 홈런으로 KIA 마운드를 폭격했고, 모창민도 솔로포를 터트리며 KIA 추격 의지를 꺾었다. 반면 KIA는 이를 연속 3번 김주찬이 침묵한 가운데 4개의 안타를 만드는 데 그치며 이를 연속 관중석을 가득 채운 팬들 앞에서 2연패를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호랑이 좌완 최다승’ -1...양현종 “신기록 땀 100승보다 더 감동”

(93승)

### 덕아웃 T 특특

▲100승보다 더 감동일 것 같아요 = ‘호랑이 군단’의 좌완 기록을 새로 써내려 가는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NC와의 홈경기 선발로 나서 6.2이닝 8피안타 7탈삼진 3실점의 기록으로 9-3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이 승리로 양현종은 타이거즈 대선배인 김정수 재필코치가 가지고 있는 통산 92승과 타이틀 이었다. “타이거즈 좌완 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해왔던 양현종은 “다음 등판에서 승리하면 정말 기쁠 것 같다. 100승보다 더 감동적일 것 같다”며 93승에 대한 의미와 각오를 밝혔다.

▲세월 빨라. 정후도 뛰고 = 이종범 MBC 스포츠 해설 위원에게는 여전히 귀여운 ‘키스톤 콤비’다. 지난 30일 해설위원으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이 위원은

KIA 1위 돌풍의 힘에 김선빈과 안치홍이 있다고 꼽았다. 두 후배가 공수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이 위원은 “세월 빠르다. 막내였는데 벌써 8-9년 차다. (이)정후도 프로에서 뛰고 있다”며 웃었다. 올 시즌 넥센의 ‘고졸 루키’인 이정후는 이종범의 아들로 김선빈과 안치홍의 막내 시절 서석초 유니폼을 입고 KIA의 볼보이로 뛰기도 했다.

▲파울만 되지 말라고 빌었죠 = 내야수 김지성은 지난 29일 NC와의 홈경기에서 5-8로 뒤진 연장 12회말 1사에서 대타로 나와 상대 마무리 임정민으로부터 좌월 솔로포를 뽑아냈다. 올 시즌 주로 대수비로 출전한 김지성은 9경기에서 15타수 5안타(타율 0.333)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홈런이 2개. 김지성은 “맞는 순간 넘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 파울이 될까봐 걱정을 했었다. 파울만 되지 말라고 빌었다”고 웃었다.

▲운동이가 갑자기 = 김기태 감독을 고민에 빠트린 부진과 활약이 동시에 있었다. 지난 29일 KIA 김진우는 선발로 시즌 첫 등판에 나섰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진우는 4.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3개의 안타와 8개의 사사구로 흔들리며 5실점을 했다. 특히 이날 92개의 공 중 42개만 스트라이크존에 넣는데 그치는 등 제구 난조를 보였다. 30일 김진우의 거구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엔트리에서는 안 빠진다. 일단 3~4일 정도는 공을 던질 수가 없다”며 보직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김 감독을 고민케 하는 좋은 활약도 있었다. 전날 네 번째 투수로 나온 김운동은 54개의 공으로 4.1이닝을 1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눈길을 끌었다. 김운동의 활약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운동이가 갑자기...”라고 웃으며 고민하는 포즈를 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핸드볼 오심 논란’ 법정간다

축구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프로축구 광주FC-FC서울전 핸드볼 오심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구 국제심판 박인선(37)씨는 최근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무기한 심판배정정지 징계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본안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광주-서울전에 부심으로 나섰다.

박씨 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가처

분신청서에서 “당시 경기 주심이 박씨의 소송 없이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하고 통화 녹취록도 제출했으나, 심판위원회의 이에 대한 판단은 누락한 채 재판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이유로 퇴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 제28회 광주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성료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 주최

전국 클라이머 200여명 참가

‘제28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민현빈(대구M클라이밍), 여자 일반부에서는 배지원(경북 동지여고)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임승진) 주최로 지난 29~30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내 인공암벽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 민현빈은 31개의 홀더를 4분6초만에 잡아 1위에 올랐고, 김한울(조선대 체육학과)은 31개의 홀더를 4분47초에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손상원(손상원클라이밍)은 3위를 기록했다.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는 김란(서울 한광고), 이가희(서울 한광고)가 2, 3위를 차지했다.

남고부에서는 최승찬(인천 학익고), 신유관(서울 한양공고), 박동건(광주공고)이 각각 1~3위에 올랐다.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 서구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남녀 초등부와 중학부, 고등부, 일반부 등 4개 종별로 나눠 치러졌으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및 상품, 경기력향상비가 지급됐다. ‘2017 코리안스포츠클라이밍대회 중등부 결승’에서 박성훈이 암장을 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대회는 15m 높이의 인공암벽 코스를 사전 공개하지 않고 경기를 시작하면서 한눈에 보고 오르는 온사이트 리딩(Onsight Leading) 방식의 난이도 경기로 치러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